

'푸른 꿈이 영글어 가는 푸른농장'

서승민 농가

광주전남 과장 양희찬



서승민 대표

남도 제일의 명산 월출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영암에서 청정 매실을 먹여 기른 '영암매력한우'가 대표 한우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 중심에 푸른농장의 서승민 대표가 있다.

푸른농장은...

현재 번식우 75두, 거세우 50두, 숫송아지 25두, 암송아지 25두를 사육하고 있는 서승민 대표와의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협나주 축산물공판장에서 근무할 당시 서승민 대표가 영암매력한우사업단 이사로 직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사업단의 전체적인 등급판정 성적도 우수하고 경락단가도 높았지만 육량등급 항목 중 등심단면적이 평균 출하체중에 비해 작았다. 그래서 육질등급은 지금처럼만 관리하고 육량등급 항목 중 등심단면적을 넓히는 쪽으로 개량 및 사양관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 그 이후 사양 관리를 통해 육량·육질등급에서 우수한 개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서승민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큰 암소를 발견하고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다 보니 큰 소에서 태어난 수소가 910kg으로 다른 소에 비해 출하체중이 200kg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꾸준히 개량한 결과 2009년에는 가격이 1천만원 이상 나가는 '슈퍼한우'를 연간 5마리나 생산한 축산농가가 될 수 있었고 2010년에는 마리당 500만원 이상 가는 송아지를 판매하기도 했다.

푸른농장의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암소 검정우에 육질, 육량 번식순으로 선발한 수소정액을 인공수정하여 혈통과 유전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송아지 생산하여 철저한 기록과 관리를 통한 사양관리 뿐만 아니라 깨끗한 축사환경과 항상 음악을 들려주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였다. 혹시 개량을 시작하는 농가가 있다면 서승민 농가의 노하우를 적극 배워보기를 권한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2009년 한우거세 등급판정 항목별 평균자료

구 분	등지방두께 (mm)	등심단면적 (cm ²)	도체중 (kg)	근내지방 (No.)	1등급 이상 출현율(%)	380kg 이상 출하율(%)
전국	12.6	88.0	413.5	5.3	79.0	77.3
전남	12.8	87.6	415.1	5.3	79.6	78.7
서승민 농가	16.7(▲4.1)	97.8(▲9.8)	488.6(▲75.1)	6.5(▲1.2)	95.5(▲16.5)	100.0(▲22.7)